

광주시, 영산강공원 일원에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실외훈련장·잔디광장·산책로 설치
내년 자치구 3곳에 놀이터 운영
신축 광역동물보호센터 직영 전환
동물보호소, 유기묘 보호시설 활용

광주시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광역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직영 등 다양한 반려동물정책을 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원, 놀이터 등 지원시설을 조성하고,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해 직접 운영체

제로 전환한다.

광주시는 민선8기 공약인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 광주 서구 덕흥동 영산강대상공원 일원에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등을 집적한 '반려동물 문화공원'을 2025년부터 조성한다.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부지는 영산강 수변과 도로(유타IC)로 둘러싸여 민원발생 우려가 적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영산강 수변 생태와 연계해 반려동물 친화도시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보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공원에는 놀이터와 실외

훈련장이 들어선다. 반려 가족이 돛자리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잔디광장, 산책로, 휴식공간도 조성된다. 특히 동물보호 교육, 직업체험교육, 반려동물 행동교정, 펫티켓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교육센터도 건립된다.

자치구에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한다. 놀이터는 반려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인근 근린·수변공원에 조성할 예정이며, 자치구와 협의해 3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광역동물보호센터는 운영체제를 민간 위탁에서 광주시 직영으로 전환해 유기동물 보호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북구 건국동에 신축 중인 광역동물보호센터

는 오는 10월 완공, 내년부터 광주시가 유기견 보호시설로 직접 운영한다. 광역동물보호센터 옆 기존 동물보호소는 리모델링을 통해 유기묘 보호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과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광주시는 호남 최초로 실시 중인 '펫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사업'과 '입양초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적극 알려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한다. 반려동물 유실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내장칩 등록 지원사업'을 마리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려 반려동물 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광주지역 반려인은 140만 인구 중 29만 여명(21%)으로 시민 5명 중 1명은 반려

동물과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2019년 4만여 마리에서 지난해 8만여 마리로, 최근 5년(2020~2024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른 유기동물수도 2015년 1700마리에서 지난해 3043마리로 79%가 급증, 유기동물의 보호환경 개선 및 입양문화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930원 '전국 최고'

월 단위 환산 270만2370원
최저임금보다 60만6100원 ↑

광주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30원으로 확정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5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2370원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6100원이 높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

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약 1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해 회의에서 2017년부터 적용하던 생활임금 산정 기준인 '광주형 표준모델'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광주형 표준모델 개선안은 평균 가구원수가 3명에서 2.2명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월 365시간에서 313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통계를 반영했다.

또 주거비·식료품비·통신비·대중교통비·사교육비 등 추가적 생계비 항목에 의류비·비소비지출액을 신설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남도한바퀴' 가을 관광코스 운행

'고흥썩섬여행' 등 28개 코스 선배
주2회 광주 관광지 경유 공동상품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명소 곳곳을 버스 여행하는 '남도한바퀴'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코스를 선보인다.

전남도는 9일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가을 남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28개 가을 코스를 새롭게 구성해 남도한바퀴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울긁불긋 가을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산림과 민간정원, 고즈넉함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사찰코스까지 남도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코스를 1만2900원부터 시작하는 착한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계절 꽃 피는 바다 위 비밀정원 '고흥썩섬여행' △선암사를 거닐며 가을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순천·광양 주말여행' △바다 위 케이블카에서 유달산의 단풍을 즐기는 '목포 아찔한 비행' 코스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전남·광주 공동상품'도 매주 금·일요일 2회 운영한다. 색깔의 꽃단지가 있는 '광주호호수 생태원'과 역사와 문화를 품은 '포충사'를

경유한다.

남도한바퀴는 외지 관광객도 쉽게 이용할 하도록 광주 유스퀘어에서 출발하며, KTX 광주승정역을 경유한다. 또한 관광지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전남 관광지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준비했다.

남도한바퀴 가을코스 상품 예약은 누리집(<http://citytour.jeonnam.go.kr>)이나 콜센터(062-360-8502)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하면 '남도 숙박할인 박이벤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이벤트는 전남지역 외 주소를 둔 관광객에게 숙박요금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다. 전남지역 숙박업소 이용 시 1박 기준 숙박료에 따라 10만원 이상은 4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의 숙박비 할인 혜택이 있다.

또한 전남관광플랫폼에서는 인기 체험 상품을 정가 대비 50% 할인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1+1 블루투어 특별행사'를 8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 서구 2024년 청년친화현정대상 정책대상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9일 서구청에서 국회사무처 소관(사)청년과미 래에서 주관한 '2024년 청년친화현정대상'에서 정책대상을 수상,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구는 청년정책과 입법, 소통 등 청년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광주 서구 제공

전남도, 이차전지·첨단바이오 신규 사업 '탄력'

내년 R&D 국고예산 1955억 확보
핵심전략사업·미래먹거리 발굴

전남도가 2025년 정부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에 국비 1955억원을 확보하면서 지역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전략사업 및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총 사업비는 2592억원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거 연구개발 분야의 불모지였으나, 매년 연구개발기획사업을 통해 국정과제 또는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제 기획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연구개발 국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기술개발비 24억원이 반영돼 배터리 안전관리 평가기술 개발을 통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선순환 생태계 조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선 △디지털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사업 35억원을 확보해 첨단신약 개발 기업에 맞춤형 임상 지원을 제공하고, 신약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바이오 특화단지로서 지정된 화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남도는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사업(30억원) △녹색해운 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 연료 공급 기술개발(42억원) △친환경 연료 화재폭발 안전성 평가 및 대응설비 개발

(12억원) △글로벌 재활용 규제 대응 플라스틱 밸류업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12억원)△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 기술개발(44억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4억원) △기능성 채소의 그린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및 산업화(5억원) 등 신규 연구개발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연구개발 투자는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남의 미래를 짊어질 후속 세대가 지속해서 성장하는 등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학·연구원 등 지역 혁신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연구개발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재난·안전 대응' 위험분석협의체 가동

경찰청·기상청 등과 협력

광주시는 9일 시청 충무시실에서 기후위기와 재난·안전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분석 협의체(TF) 회의'를 개최했다.

'위험분석 협의체(TF)'는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하나이다. 협의체는 지역별 특

성에 맞는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광주시, 광주경찰청, 광주지방기상청,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난·안전 현황을 공유하고, 재난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재난 위험인자를 체계적으로 발굴, 이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와 실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정

책과 최신 재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부서와 기관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재난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위험 분석과 점검 활동 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해 재난 대응 역량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